

眞正한 丁茶山 研究의 길 (四)

(아울러 茶山論에 나타난 俗學的 見解를 批判함)

天台山人

四, 新舊 轉換期の 茶山의 思想的 二重生活

茶山이 生存하든 때는 바로 李朝의 末期로서 土地制度를 中心으로 한 封建 崩壞 過程이였다. 李朝의 土地制度는 大略 世宗 때까지에 □□된 고□의 田 制를 改革하고 土地는 一切 公有를 原則으로 하되 科田, 功臣田, 別賜田 等を 特權層에 授與하는 例外를 □해야 이는 事實上 世習, 私有的 起源으로서 벌써 當初부터 公田制 □□의 禍因을 □하였든 者이다. 그리하여 中央權力이 □弛된 때에는 벌써 □□의 土地□□과 吏胥의 中間 欲求가 盛行되나니, □田□이 壬辰亂前에 一四五萬九二四結一負였든 것이 壬辰亂後에 九四萬五一五三結十八負三束으로 減退되고, □宗 庚子에 一三九萬一七三三結이든 것이 그 후 百年을 지나 丁茶山 때에는 八一萬社三三結밖에 되지 안혔다(『經世遺表』 卷十七, □田□). 이는 「大亂大荒後 凡 山林川□ 荒□의 地를 土豪勢家가 立案을 私出하여 限하여 己有를 삼아 子孫에게 傳하거나」(同上書, 邦田議), 그 他 土地의 兼併을 重要的 原因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稅米, 大同正米 外에도 三手米, 結錢, 耳錢, 奎章閣冊紙價, 大同緒米, 害員考給租, 坊主人勤□租, □馬租, 雇馬錢, 不米 等等의 □□로 百姓에게서 苛斂해서는 그 大部分이 中間□數로 들어가고 마는 것이요, 國家의 田結과 關係가 엮었다(同上書, 邦田議). 「無名之稅가 旬徵月斂하여 民不作農하고 田野以黃하니 昏民庫之崇也라. 民庫不革이면 國則必亡이라.」(同上)

「隱結餘結이 歲增月研하고 宮結屯結이 歲增月研하여 原田의 公에 稅하는 者 歲減月縮하니 將若之何오.」(『牧民心書』 卷十, 田政條) 田制蓋然하니 稅法이 드디어 紊하여 年分에 失하고 黃豆에 失하여 國의歲入이 얼마도 업는지라(『牧民心書』 卷十一, 稅法條). 그리하여 還上의 弊와 「守臣□□」과 (胥吏作奸『牧民心書』 卷十三)과 其他 雜稅의 弊害를 자세히 말하였다. 그리하여 當時의 唯一한 教育機關인 鄉校, 書院은 土豪劣□의 民衆의 生活을 威脅하는

笑□로 化하고(『新興』第八號, 拙稿 書院論을 照), 支配者 哲學이든 儒敎는 民衆의 信賴를 喪失하고 空疎한 理氣論은 現實生活에서 距離가 넘우도 遼遠한 形而上學이였다.

歐洲에서는 産業革命 後 機械에 依하여 多□으로 生産된 □品을 차츰려 으스스한 世界의 구석구석에 그 販賣市場을 求하였다. 그들의 物質文明--資本主義 文明에 對한 消息을 곳세계 閉鎖한 이 나라의 門戶도 뚜드리기 始作하였다. 그들의 가지고 오는 것은 처음엔 天主學, 다음엔 商品과 軍艦이였다. 天主學은 그들의 進歩된 이데오로기-였다. 그리하여 이 나라의 腐敗한 儒敎道德의 桎梏 속에 헤매이든 市民들이거나 또는 아무 信仰 업시 그쳐 □□의 苦悶에 헤매이고 잇든 母奴들에게 對해서 天主學은 無二의 瞬間的 慰安劑였고, 無雙한 天來의 福音처럼 되어 이 百姓들의 好奇心을 乃終에는 곳센 信仰心을 얻혔든 것이다.

그리하여 正宗丁巳에 丁茶山이 三十六歲 때의 上疏

「臣於西洋邪說 嘗觀其書矣 然觀書豈遽罪哉 ……蓋嘗心欣然悅慕矣 蓋嘗夸諸人矣 ……臣之得見是書 蓋在弱冠之初 而此時原有一種風氣 有能說天文曆象之家 農政水利之器 測量推驗之法者 流俗相傳 指爲該洽 臣方幼眇 竊獨慕此 ……繳繞於死生之說 傾嚮於克伐之誠 惶惑於離奇辯博之文 認作儒門別派 看作文垣奇賞 ……」(□研編卷四, 丁若鏞上疏)에 依하여 보든지 「第不可以□兄」의 語로 보든지 「若鏞」이라는 洗禮名까지 바든 것으로 보든지, 茶山은 天主學을 틀림 업시 미뎃든 것이다. 아무 信念 업는 文□이면 들으되 一定한 觀念形態로 盤石 가튼 信仰을 가진 儒學者로서 文科에 及第까지 하고 多數人의 指彈을 바더 가면서 스스로는 天主教徒가 아닌 것처럼 캄푸라지 해가면서 그實西學을 篤信하였다는 것은 여기 時代的 先覺者로서의 二重生活의 苦痛을 免할 수 업섯든 것이다. 그는 지금 封建崩壞 過程에 잇스되 將次 새로운 形態의 社會制度가 必至的으로 到來할 것을 알었다. 또는 그 井田說에서 豫言까지 했섯다.

그러나 아즉도 □□안 儒敎徒의 貴族□家였섯다. 그래서 安在鴻氏의 말한바 「몸간」, 「루쑤」, 「黃宗□」, 「아담·스미스」, 「洪□□」, 「朴燕巖」, 「朴楚亭」, 「李舜臣」…等等 가트면서 그와도 似而非 하였다. 그는 貴族 出身이면서 貴族엔 반대요 儒門 出身이면서 儒門에도 反對요, 그러타고 純天主教로 自□한 것도 아니요 未來社會의 豫言과 □□□을 進言하면서 現制度에 對한 完全한 ××도 아닌 中間過程의 人物이였섯다.